

광주 동구 주민들 가장 넓은 집서 산다

■ 광주·전남 공동주택 크기 분석

광주에서 아파트의 평균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구도심인 동구였으며, 광산구는 아파트 평수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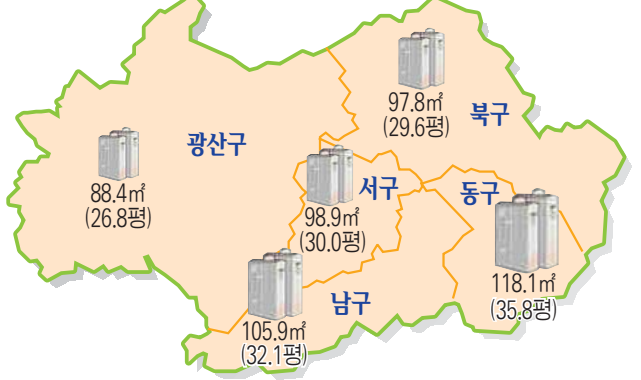
특히 광주·전남은 최근 2~3년간 중소형주택의 선호 추세 속에서도 신규 주택을 중심으로 한 대형화 추세로 인해 아파트 평수가 꾸준히 커지고 있으나 서울·수도권은 물론 부산, 대구 등 광역시중 평수가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사재에 따르면 현재 광주 아파트의 구당 평균 면적은 98.6㎡(29.9평)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96.3㎡(29.2평)에 비해 아파트의 평균 면적이 2.3㎡(0.7평) 늘어난 것으로, 지역 주택의 평균 크기가 30평형 돌파를 눈앞에 왔다.

구별로는 동구 아파트의 평균 면적이 117.2㎡(35.5평)로 가장 컸으며, ▲남구 104.8㎡(31.7평) ▲서구 99.6㎡(30.1평) ▲북구 94.4㎡(28.6

■ 광주 구별 아파트 평균 면적



평균 118.1㎡로 가장 넓어... 광산구는 소형 많아

여수·광양 산단 밀집지역 소형 비중 상대적 높아

평) ▲광산구 87.4㎡(26.4평) 등의 순이었다.

동구의 경우 학동과 운림동 등을 중심으로 중대형주택이 대거 몰려 있는 데다 최근 계림동 등의 구도심 재개발로 인한 대형화 추세가 뚜렷했다.

반면 광산구는 도산동 등 기존 주

거지의 주택이 대부분 중소형으로 이뤄진 데다 첨단 및 신창지구 등에 대한 중소형주택 공급이 잇따르면서 평균 면적이 작게 나타났다.

다만 광산구는 최근 개발이 진행 중인 수완지구나 하남2지구 등에 공급되는 주택이 대부분 중대형이라는 점에서 향후 아파트 평균 면적

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전남은 담양군의 아파트 평균 면적이 112.6㎡(34.1평)로 가장 컸으며, ▲무안군 109.6㎡(33.2평) ▲보성군 105.7㎡(32.0평) ▲고흥군 100.4㎡(30.4평) 등이었다.

반면 ▲광양시 71.2㎡(21.6평) ▲나주시 78.4㎡(23.8평) ▲여수시 82.6㎡(25.0평) 등 시 단위 지역은 전남 평균 88.5㎡(26.8평)를 밑돌았다.

시 단위 지자체의 평균 집 크기가 군 단위에 비해 작은 것은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데다 광양과 여수 등의 경우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직원 숙소나 기숙사들이 대거 몰려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국의 경우 서울 아파트의 가구당 면적이 103.9㎡(31.5평)로 가장 넓었다. 지역별로는 ▲대구시 102.0㎡(30.9평) ▲대전시 101.3㎡(30.7평) ▲부산시 101.3㎡(30.7평) ▲경기도 101.2㎡(30.7평) 등이었다. 전국 아파트의 평균 면적은 99.1㎡(30.0평)로 집계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지난 15일 잠실 올림픽체조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린 '현대캐피탈 세계체조 걸라쇼'에 출연한 나디아 코미네치 감독(오른쪽에서 세번째)과 선수들이 로체 이노베이션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기아 로체 이노베이션 '대박' 보인다

출시 사흘만에 2,400대 계약 완료 중형차시장 내수 점유율 2위 눈앞

기아자동차는 지난 12일 출시한 로체 이노베이션이 16일까지 출시 사흘만에(영업일 기준) 사전계약을 포함해 2천400대가 계약돼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추세라면 매달 5천대인 판매목표를 쉽게 넘어설 전망이다.

기존의 로체 어드밴스도 16일까지 1천85대가 계약돼 기아차의 중형차 계약대수는 이달 들어 보름 만에 3천485대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5월까지 중형차 시장

의 월 평균 판매대수인 2만1천887대의 16%에 달하며, 특히 로체 이노베이션을 출시하면서 설정한 중형차 시장점유율 목표 25%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의 점유율이면 내수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중형차 시장에서 단숨에 2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한편, 기아차는 로체 이노베이션의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위해 출시일로부터 7월 11일까지 한달간 전국 각지에서 로체 이노베이션의 고객 시승회를 개최한다.

기아차는 영업점 뿐만 아니라 전국 20개의 서비스센터에도 300대의 로체 이노베이션 시승차를 배치, 달라진 성능과 디자인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아차는 6월 한달간 '로체 이노베이션 트리플 7 이벤트'(택시 제외)를 실시한다.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로체 이노베이션 출고고객을 대상으로 엔진 및 동력전달 계통의 보증기간을 국내 중형차 최초로 기존 5년 10만km에서 7년 15만km로 대폭 연장한다.

로체 이노베이션의 가격은 2.0 모델이 1천753만~2천350만원, 2.4 모델은 2천715만원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전남 핵가족·고령화 추세 2020년까지 18만가구 더 필요"

토공 지역발전협력단장 제기

광주·전남은 핵가족화와 고령화 추세 등의 여파로 오는 2020년까지 18만가구의 집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인철 한국토지공사 지역발전협력단장은 17일 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 주최로 열린 '광주·전남 주택시장 활성화 협의회'에서 '광주·전남 공공

택지 수요예측'이란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보통가구 기준 주택보급률은 각각 103.2%, 135.4%에 달한다. 하지만 이는 1.2인가구와 5인이상의 혈연가구 등을 제외한 것으로, 주택수소 현황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게 백 단장의 주장이다. 실제 광주의 경우 1.2인가구 등을 감안한 주택보급률은 82.4%에

머물러 있다. 이같은 수준은 전국 평균(83.2%)은 물론, 미국(109.5%)이나 일본(109.3%)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다.

백 단장은 "현재 국내의 주택보급률 통계는 독신 및 2인가구 등이 배제되는 등 시장상황과 거리가 크다"며 "광주·전남은 고령화와 독신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0년까지 18만가구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단장은 또 "광주·전남은 통념과는 달리 선진국에 비해 주택공급이 아주 부족한 실정"이라며 "고령화와 1.2인가구 증가 추세에 따른 주택공급을 위해선 34.2km(1천35만평)의 택지확보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테크노파크

남헌일 원장 취임



남헌일(사진)씨가 17일 광주테크노파크 제4대 원장에 취임했다.

광주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

에서 남 원장은 "향후 3년간의 임기 동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수혜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광주테크노파크 입주기업 매출액은 2004년 대비 450억원이 증가했으며 고용인원도 525명이나 늘었다. 같은 기간동안 100만달러 이상의 수출액을 기록한 업체도 5개사에 달했으며, 광주테크노파크 외부기업에게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428억원의 매출증가, 483명 고용창출 등 성과를 올렸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명품은 불황도 없나

백화점 명품매출 39% 급증 3년래 최고치

물가 급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됐지만 백화점 매출은 명품 판매가 사상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에 힘입어 11.3% 급증했다.

1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3대 주요 백화점의 5월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1.3% 늘었다. 이 증가율은 2006년 1월(11.6%) 이후 2년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백화점 매출 가운데 명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9.1% 급증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5

년 이후 가장 높았다.

명품의 경우 수입 의류와 명품브랜드 잡화류 등을 위주로 판매가 급진장했으며 최근 10개월 중 7개월 동안 2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명품매출 증가율은 2월 19.4%에서 3월 24.1%, 4월 25.6%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아울러 5월 백화점 매출 가운데 잡화(17.6%)와 식품(13.9%), 가정용품(10.9%) 등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남성 의류(-1.7%)만 감소했다. 연합뉴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4월중 지역 여수신 둔화

지난 4월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총 여·수신은 전월보다 늘었으나 증가폭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4월중 광주·전남 금융기관의 총 여신은 45조9천18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월보다 1.0%(4천509억원) 늘어난 것으로, 전월 여신 증가폭(1.1%)에 비해 0.1%포인트 둔화된 것이다.

총수신도 63조218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0.7%(4천680억원)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0.2%포인트 축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화학비료값 인상분 70% 지원

정부 30%, 농협·업계 40% 각각 부담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화학비료 가격 인상분 가운데 70%를 당분간 정부와 농협·업계가 메워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말까지 한

시적으로 농가의 화학비료 추가 부담액의 30%를 추경 예산을 통해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협은 최근 화학비료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 오는 19일부터 화학비료 가격을 평균 60% 정도 인상할 계획이며, 가격 조정 이후 농가의 추가 부담 규모는 1천500억 정도로 추산된다.

1천500억 가운데 정부가 약 30%, 농협 및 비료업계가 약 40%를 각각 책임지기로 함에 따라 농가의 체감 인상은 실제 가격 인상분 60% 가운데 18% 정도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동양인의 건강이 Aminan

무안 하이난(삼아)직항 제주수,보가제 편성 ₩ 899,000~

구분	비율	비율	비율
1인실	1인실	1인실	1인실
2인실	2인실	2인실	2인실
3인실	3인실	3인실	3인실
4인실	4인실	4인실	4인실
5인실	5인실	5인실	5인실
6인실	6인실	6인실	6인실
7인실	7인실	7인실	7인실
8인실	8인실	8인실	8인실
9인실	9인실	9인실	9인실
10인실	10인실	10인실	10인실

▶문의전화 ▶ 010-225-8070